

노인 일자리 창출 · 세수 확충 효과 거뒀

전주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 2년간 맞춤형 일자리 제공 · 9000여만원 세외수입 확충

전주시가 추진한 '노인역량활용(구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이 신노년세대에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추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인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기관에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참여 지자체로 승인받아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실·과·소 중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7개 부서를 발굴하고, 부서별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인 자체 사업의 60세 이상 참여자 25명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주시가 추진한 '노인역량활용(구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이 신노년세대에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일괄 검토 후 전주시에 25명에 대한 4250만원의 국비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시는 2년 간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원금(국비) 9000여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의 지원 조건은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월 60시간 및 5개월 이상

근무 △월평균 급여 76만2000원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70만 원의 국비 지원금을 전주시가 받게 된다.

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 본부장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이 지역 현안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2년 연속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준 덕분에 올해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은 지역의 환경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 현안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는 서서학동 주민센터를 찾아 50만원 상당의 백미 22포를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기 전해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서서학동에 백미 22포 기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상임대표 소준노)는 서서학동 주민센터(동장 김현주)를 찾아 50만원 상당의 백미 22포를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며, 백미는 서서학동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소준노 상임대표는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며 "이번에 전달한 쌀이 추운 겨울을 맞

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주 서서학동장은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겨울철 한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의 기부는 이번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겨울방학 스케이팅 특강 운영

전주시설공단, 내년 1월 6일~2월 28일 빙상경기장서 진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스케이팅 특강'을 운영한다.

지난 27일 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겨울방학 특강이 진행된다.

3차에 걸쳐 2주간 종목당 3개 특강반

이 운영되며, 각 반당 8씩 총 144명이 강습을 받게 된다. 강습료는 12만 원으로 입장료(어른 3000원, 청소년 2400원, 어린이 2100원)는 별도로 내야 한다.

나이 제한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수강할 수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강반을 개설했다"며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스케이팅 강습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서전주로타리클럽, 300만원 상당 생필품 후원

평화1동에 라면 · 화장지 등 전달

서전주로타리클럽(회장 박병용)은 연말을 앞두고 평화1동주민센터에 라면, 화장지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서전주로타리클럽은 관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백미, 김치 등 생필품들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박병용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평화1동 이명동장은 "연말을 앞두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준 서전주로타리클럽의 꾸준한 이웃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함께 행복한 평화1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서전주로타리클럽은 연말을 앞두고 평화1동주민센터에 라면, 화장지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위치한 전성교회는 연말을 맞아 지난 27일, 혁신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물꾸러미 30상자(3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전성교회, 혁신동에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기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위치한 전성교회(담임목사 윤인선)는 연말을 맞아 지난 27일, 혁신동주민센터(동장 서세현)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물꾸러미 30상자(3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영양제, 세제, 식품 등 다양한 생필품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는 혁신동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홀로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성교회 윤인선 목사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